



항공기 개조 참여
현대기술개발,
美 펌코사와 기술 제휴

現代技術開發이 미국 펌코사와 기술제휴로 항공기 개조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이를 위해 現代技術開發은 올해 2천억원을 투자해 慶南 泗川에 70만평의 부지를 확보, 항공기 개조를 위한 공장을 설립할 방침이다.

現代技術開發은 항공기 개조를 위해 미국 펌코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키로 하고 통상산업부에 생산사업 신고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신고서가 수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공기 개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現代技術開發은 또 미국 펌코사와 항공기 개조사업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現代技術開發은 이를 통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거나 군용 헬기의 개조사업 등 항공기 개조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現代技術開發이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펌코사는 항공기 개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헬기 생산 추진
대우, 동양최대 공장
건립 계획

대우중공업은 2월 3일 충남 보령 관창공단에 20만평 규모의 동양최대 최신식 헬기전문 종합생산공장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총 3,000억원을 금년 5월부터 97년 말까지 투자하여 한국형 경전투헬기(KLH)공장을 비롯한 종합헬기공장을 건립하여 군수용 및 민수용 헬기 완제품 조립생산과 Rotor Blade, Rotor Hub, Transmission, Composite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한편 헬기 성능 개량사업과 아시아지역 운항헬기의 부품공급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헬기 개발 생산을 위한 제반 Ground Test 및 관제 Tower 등 최신 비행시험 전용설비도 구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 에어쇼 개최
후보지 성남비행장
유력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규모의 에어쇼가 열릴 예정이다. 공군은 내년 5월이나 10월중 대대적인

국제 에어쇼를 개최키로 하고 국내의 업계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성남비행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상 참여업체는 3백여개사로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효과도 있어 호텔등 관광산업 진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軍이미지 제고의 국력 홍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이 국제 에어쇼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첨단 민간항공기·전투기·수송기·전폭기, 군용 및 민수용 헬기 등 각종 항공기와 미사일 등 방산제품, 통신위성과 발사대 등 위성설비, 통신시설을 비롯한 공항설비, 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각종 항공부품을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 선보인 美공군의 선드버드 등 세계적인 곡예비행단도 초청,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 첫 쇼 이후 2년마다 이를 정례화, 아시아권 최대의 에어쇼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도쿄(東京)·상하이(上海)·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에서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다.

중양동체 조립 성공

대우중공업, 1호기 생산 출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 기술 도입생산되고 있는 F-16전투기 1호의 중양동체가 완성됐다.

1월 25일 大宇중공업은 창원공장서 미국 록히드社의 부사장과 국방부, 공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전투기 중양동체 국내조립 1호기 출하행사를 가졌다.

대우중공업은 이 동체의 생산을 위해 지난 3년동안 총 2천만 달러와 연인원 2천여명을 투입했다. 이번에 완성된 중양동체는 KFP사업의 단계별 국산화중 첫 단계 생산품으로써 원제작사인 록히드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생산한 것이다.

대우중공업은 원제작자인 록히드社의 평균 결함률을 밑도는 완벽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는 이번 한국전투기 기체 생산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현재 추진중인 혼련기사업(KTX)등 항공기 국산화개발과 민수분야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商用기 270대 인도

보잉사, 최악의 불황

美보잉社は 지난해 270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제작, 고객사들에 인도했으며 이는 지난 87년이후 가장 저조한 연간 실적으로 항공산업 최악의 불황에 근접한 것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보잉社가 지난해 인도한 상업

용 항공기수는 지난 93년보다 18%가 줄어든 것이며 최고 기록인 92년도의 446대엔 훨씬 못미치고 있다.

보잉社의 올해 항공기 생산대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의 한 항공업계 분석가는 "우리는 현재 바닥국면에 접근해 있다"면서 "95년의 상황이 다소 호전될지 악화될지는 더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만-美간 합작생산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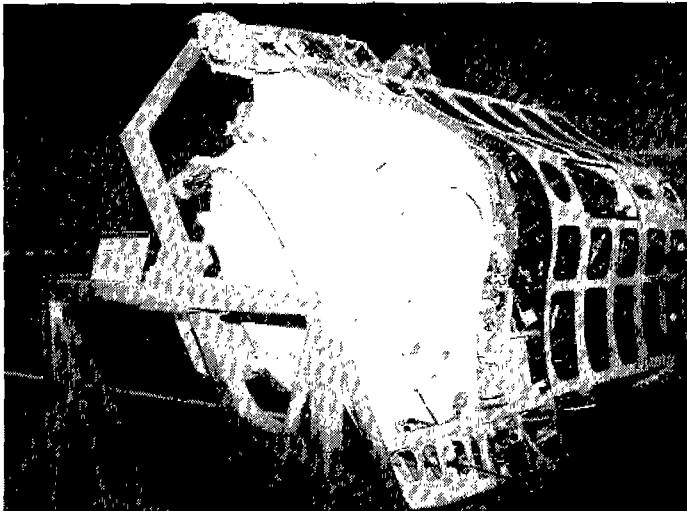
6인승 소형제트기 SJ-30제작

臺灣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의 항공업체인 스웨어링엔社와 제트기 합작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臺灣항공공사(TAC)와 스웨어링엔社측은 2월 5일 6인승 소형제트기인 SJ-30을 미국내에서 합작생산키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

臺灣 정부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TAC는 국내 항공업계 육성을 목표로 지난 91년 설립됐으나 지금까지 그다지 뚜렷한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

작은 선 TAC 회장은 스웨어링엔社의 합작사업과 관련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우리회사로서는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대우중공업이 출하한 F-16 전투기 중양동체 1호기

그는 “항공산업에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일본이나 韓國도 오랜 기간 항공산업 진출을 모색키 위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TAC는 공장, 항공기 제조, 항공 관리 등 종합적인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장이나 수익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오는 97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며 연간 생산규모는 66대라고 밝히고 이번 합작사업에는 대만측의 TAC를 비롯, 聯華電子有限公司, 턴텍스 등 5개업체가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 이중 TAC는 총투자소요액의 10%인 9백6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버스사 차지 민항기수주 1위에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작년 민항기 수주 경쟁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보잉을 누르고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4

개국 합작회사인 에어버스는 작년 121대의 항공기를 수주했으며 보잉은 120대를 수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항공기 제작업계 관계자들은 수주관련 확정치가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며 에어버스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 민항기 수주금액으로는 보잉이 80억달러, 에어버스가 70억달러로 금액 규모에서는 보잉이 여전히 선두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Antonov사 시험비행 Prop-Fan 4발수송기 완성

러시아의 Antonov사는 작년 12월 16일 세계 최초로 4개의 Prop-Fan 엔진을 장착한 An-70 Wide body 수송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프라이트인터내셔널지 최근호가 보도했다.

동 항공기는 구소련 공군의 An-12 및 Il-76의 대체기종으로 수요가 제기되어 1970년대 중반에 설계되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3국의

공동노력으로 개발하던 기종이다.

시제기는 작년 2월에 생산되었으나, CIS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자금력 부족과 아울러 일련의 기체 결함 노출로 시험비행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한다.

시험비행은 Gostomel 비행장에서 3개월간 계속될 것이며, 95년 3월 모스크바 근교의 Zhukovsky 비행 연구소로 옮겨져 최종 시험비행을 거쳐, 95년 파이어어쇼에 출품될 예정이며 1993년 6월에 체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정에 의하면 러시아의 Kiew 및 Samara 공장에서 500대의 항공기가 생산될 예정인데 Antonov사는 향후 15년간 약 1500대의 항공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항공3사의 여객기 수주동향

구 분	Airbus	Boeing	MD
93년	38	237	15
94년	121	120	23